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서진건설 될 듯

사업계획서 평가 마무리

광주시 이르면 오늘 발표

“심의 평가기준 이상 점수”

10여 년간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3차 공모에 단독 참여한 (주)서진건설이 금명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평가를 마무리지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서진건설은 총점 1000점 가운데 850점 이상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평가심의위 평가에서 850점 이상을 얻어야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평가 요소는 개발계획·사업수행능력·공공기여방안·관리운영계획 등 4가지다. 광주시는 공모를 내면서 5성급 호텔(특 1등급) 150실 이상 의무설치 및 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공공편의시설의 조성면적

합은 21만㎡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역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상가시설 부지 면적은 2만4170㎡ 이하로 제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지침에서 밝힌 의무사항을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반영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기준 점수인 850점 이상을 받았다”면서 “실무 단계 검토가 이미 끝났고 결재 과정만 남아있어 이르면 23일 우선협상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평가위 심의 이후에도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업 이행 방안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업체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공모가 무산됐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41만7531㎡ 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형호 기자 khh@

민주당 전남도당

성희룡 등 연루

목포·여수 도의원 2명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동료의원을 성희룡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기초의원들의 당적을 박탈했다.

제명 처분된 해당 기초의원들은 민주당 당적을 잃지만, 소속 시의회 정계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목포시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전남도당은 또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원 B 의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9명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성희롱·성폭력, 사회적 갑질 금지 의무를 두 시의원이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윤리심판원은 판단했다. A 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의 거부에 도 지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B 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장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접수됐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잃게 되지만 소속 시의회 정계 처분이 있을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한다. A 의원에 대해서는 피해 의원이, B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당 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당의 윤리 규범을 명백히 위반,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문인 북구청장과 함께 장애인들을 만나고 있다.

박능후 복지장관 광주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의견 청취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간담회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설 이용자들과 보호자,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 이용자 대표 신대현씨는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연 2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이라며 “다양한 장애영역과 생애주기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여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관 이용자 총무 윤용현 씨는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노후해 이용인 안전 문제와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된다”며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장애아동 보호자는 이 자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서 현재 장애아동에 특화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중

합대책’을 발표했다”며 “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다양한 장애유형, 생애주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가족, 관련 분야 종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용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사례전문기관과 함께 동행상담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며 “장애유형별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동행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道-22개 시군, 25일 업무협약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제정·예산 확보 나서

24만명 … 1년에 60만원 지급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의 농·어민 24만여명에게 ‘농·어민 수당’이 지급된다. 전남도와 시·군은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남도청에서 ‘전남형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시장·군수 14명과 관한 대행 1명, 부단체장 7명 등 22개 시군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부터 전남 지역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24만3122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할 예정이다. 22개 시·군 모두가 1년에 두 차례,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방식은 전남도가 보조금 형태로 시·군에 분담액을 지원하면 시장·군수들

이 각 시·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지급대상자도 지급기준일(2020년 1월 1일) 1년 전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민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남지역에서는 농업인 21만9465명, 어업인 2만3657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 규모는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역상품권인 ‘새천년 상품권’ 대신, 시장·군수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지급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분담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애초 전체 농민 공익수당의 40%를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군수들은 50%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는 당장, 오는 9월 예정된 임시회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과 지급 액수, 지급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한 이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에서 전남 농수산물 특판전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에서 전남지역 농수산물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도와 롯데슈퍼는 이달 24~30일 전국 롯데슈퍼 매장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담양 멜론, 담양·장성 토마토, 순천·화순 복숭아, 완도 전복, 영광 굴비, 신안 새우, 무안 양파즙이다. 특히 이번 특판전을 통해 전남산 쌀이 롯데슈퍼 전국 매장에 처음으로 입점한다. 전남도와 롯데슈퍼가 올해 6월 맺은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무안

황토랑 쌀과 보성 녹차 미인 쌀이 판매대에 오른다. 서울과 광주에 있는 롯데슈퍼 매장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 5곳을 개장한다. 롯데슈퍼 광주 품앗이점은 화순 도곡 로컬푸드의 직매장을 오는 29일 개장할 예정이다. 롯데슈퍼는 이달 3~5일 전국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무안 양파 500t을 판매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롯데슈퍼와 손잡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 초청 특강

광주시는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 특강’으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허재완 위원장(중앙대 교수)의 강연을 23일 오전 10시30분 시청 무등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평양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준비했다.

평양의 도시계획 원칙과 도시계획 관

점에서의 평양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도시문제 발생에 따른 토지 이용 패턴 변화 등을 들여다보고, 광주다운 도시 만들기에 접목할 부분을 찾는다.

허 위원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

Official FINA Partners



National Sponsors



Official FINA Suppliers



National Suppliers



National Supporters

